



'물류난' 제주~칭다오, 해외통상사무소 설립

도, 현지 등기절차 진행 중... 4번째 해외통상사무소 4월부터 가동... 인원 2명·연간 운영비 1억7000만원 "부족한 물동량 확보 위해 칭다오 현지 마케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국제해상항로를 개설했지만 배에 실을 화물이 부족하자 칭다오 현지에서 물류 유치 등에 나설 해외통상사무소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

제주도는 중국 칭다오에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한 등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표처는 중국 현지에서 부르는 우리나라의 해외통상사무소를 말한다. 해외통상사무소는 '제주도 수출

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수출상품 전시·홍보와 수출상담 지원, 해외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을 전담한다.

제주도는 조례 시행 이후 중국 상해와 일본 동경, 싱가포르에 해외통상사무소를 각각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어 칭다오에도 설립되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해외통상사무소는 총 4곳으로 늘어난다.

제주도는 칭다오 해외통상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등기 업무를 진

행하기 위해 5급 공무원을 올해 칭다오 현지에 파견한 상태다.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공무원은 칭다오 해외통상사무소를 맡게 되며 이후 1명을 추가 채용해 총 2명 규모로 운영된다.

또 칭다오 해외통상사무소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 받아 운영하며, 연간 운영 비용은 1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도는 부족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려면 칭다오 현지에 해외통상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 실을 화물이 부족해 손실이 발생하면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중국 선사는 운영 비용으로 연간 519만4000달러(한화 약 75억원)를 제시했다. 이는 1항차당 220TEU(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실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해 제주도는 지난해 운항 2개월 여 만에 7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중국 선사에 지급했다.

올해도 손실보전금 지급은 불가피하다. 올해 1월 칭다오 선사는 총 4항차 운항에 51TEU, 올해 2월 3항차 운항에 50TEU를 싣는데 그쳐 손익분기점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의원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15)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

현직 도의장 불출마에 3개 정당 경쟁



민주당 비례대표 2명 출사표 이경심 vs 현지홍... 경선 전망 국민의힘 고민수 재 도전장 개혁신당 이진우 선거 준비 중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의 경우 현직 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누가 새로운 지역구 도의원에 당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역 비례대표들 간 경선이 진행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3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경심 의원(59)과 현지홍 의원(45) 두 비례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혀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고민수 예비후보(57)가 다시 도전장을 던졌으며, 개혁신당에서는 1993년생인 이진우 예비후보(33)가 선거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저는 지난 4년간 비례대표 의원으로 제주도정 전반을 아우르며 정책 전문가의 역할을 확실히 검증받았다"며 "제주 전체를 바라보던 넓은 시야와 입법 에너지를 제 삶의 터전인 노형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쏟아부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출퇴근·등하굣길 교통혁신 >아파트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촘촘한 생활복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교통, 주차, 교육 등 노형의 성장통을 차가운 '행정의 언어'가 아닌 따뜻한 '노형의 진심'으로 보듬겠다"고 강조했다.

현지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

시 청와대 행정관의 경험과 제주도의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힘과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지역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제 저는 노형동을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도시의 성공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지와 건강이 우선인 마을 >안전한 마을 >모두가 행복한 마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고민수 예비후보는 "4년 전 낙선한 이후 지역에서 교통봉사 및 주민 활동을 계속하며 지역의 불편함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깊게 공부했다"며 "노형동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주차타워 및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과 수영장 복합시설 조성 >AI기반 교통정책 및 공학우회 이진우 예비후보(33)가 선거를 준비 중이다.

이 예비후보는 "노형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며 >자영업·상권회복 프로젝트 >노후 공동주택 공공부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노형동 교통·보행 혁신구역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진우 예비후보는 "고령화와 청년들의 탈재주로 도시는 활력을 잃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이 곧 본격적인 노후 구간에 들어서며, 상가 공실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예비후보는 "노형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며 >자영업·상권회복 프로젝트 >노후 공동주택 공공부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노형동 교통·보행 혁신구역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동보도, 정리-헤드라인제주 총창빈기자>

'2026 e-모빌리티 엑스포' 내일 개막

27일까지 제주신화월드... 기업 간 비즈니스 중점 중국 드론 사절단 대거 참석... 자율주행대회도 개최

세계 e-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지평도를 엿볼 수 있는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가 24일 개막, 27일까지 제주신화월드에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AI 기반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e-모빌리티 미래'를 핵심 축으로 삼아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공동 미래'를 설계하는 세계 유일의 모빌리티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치러진다.

올해 엑스포는 단순 관람 위주의 전시에서 벗어나 기업 간 거래(B2B)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엑스포 기간 내내 비즈니스 네트워킹·만찬과 매치메킹 프로그램이 계속된다.

특히 이번 엑스포 개막식에는 글로벌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국제기구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기초 발제에 나선다.

김영태 OECD ITF(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에드먼드 아라가 아시아 전기차협회(AFEVA) 회장,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산

업 협력을 주도하는 쉬밍 RCEP RICC(지역산업협력센터) 회장, 주수(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동아시아 본부장 등이 지속가능하는 모빌리티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Global e-mobility Summit'은 글로벌 자본과 국내 혁신 기업을 잇는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중국 혁신의 심장부인 선전의 핵심 인력들도 제주를 찾는다. 천후이젠 선전 자동차전자산업협회 비서장은 사절단과 함께 방문해 한국의 부품사들과 실질적인 기술 매칭을 진행한다. 선전 드론 산업협회 또한 참가, 지상과 하늘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선보인다.

이밖에 이번 엑스포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제4회 국제 친환경 선박엑스포'는 K-조선의 전동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5회째를 맞는 국제 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직 도의원 문대림 지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제주도의원 11명이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문대림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민주당 전 도의원 11명 문대림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제주도의원 11명이 지난 20일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문대림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강성균·고태순·김태석·문경운·박규현·방문주·소원욱·안창남·좌남수·홍기철·홍명환 전 도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의원만이 이재명 정부와 잘 맞춰 도민 주권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며 문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 이들은 "문 의원이 도의회 의장, 청와대 비서관, JDC 이사장,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험으로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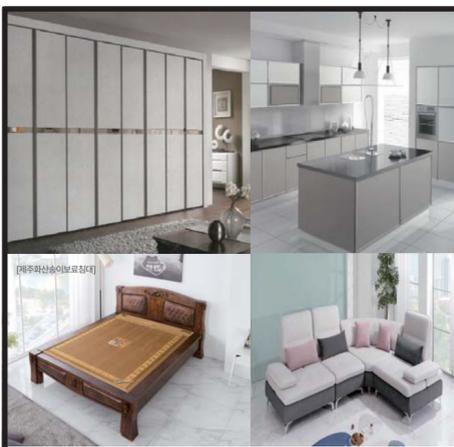
김태석 전 의장 등은 "오 지사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4년 동안 지역 경제는 무너져 가고, 청년들은 떠나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 상장기업 20개 유치, 15분 도시 같은 핵심공약이나 BRT와 제2공항 등 중대 현안 해결에 있어 4년간 이론 성과가 무엇이나는 뼈아픈 질문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 제주를 위해 다 바꾸는 혁신과 새로운 선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실내 토털 인테리어/욕실/거실/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불박이장/침대/소파/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당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